•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①	3	⑤	4	④	5	③
6	⑤	7	①	8	⑤	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③	23	④	24	④	25	①
26	②	27	④	28	②	29	③	30	④
31	③	32	⑤	33	③	34	②	35	③
36	③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①	42	③	43	④	44	①	45	③
46	⑤	47	①	48	④	49	⑤	50	⑤
51	②	52	②	53	④	54	③	55	⑤
56	②	57	⑤	58	①	59	①	60	③

/ 듣 기 /

1. [정보를 요약하며 듣기]

<1번> 이제 여러분에게 대화의 일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진행자 : 오늘은 대한정밀화학의 팀장으로 계신 박정호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팀 장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셨습니까?
팀 장 :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업이 잘되고, 정유회사처럼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일하면 많은 연봉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시작은 이처럼 단순했지만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이유는 화학공학만이 가진 매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학공학은 다양한 분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응용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화학공학만의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화학공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팀 장 : 화학공학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가공하여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우리 주위의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화학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팀 장 : 화학과에서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탐구해서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일을 한다면, 화학공학과는 창조된 새로운 물질을 실제 제품으로 활용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 물질에서부터 유용한 중간물질과 최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상당히 총괄적인 학문 분야인 것 같은데,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합니까?
팀 장 : 화학공학과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기술을 연구합니다. 화학공정의 단위, 반응, 개발에서부터 전체 화학 공정 설계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연구하지요. 즉, 중화학공업, 정밀화학공업, 신소재, 바이오 공업, 에너지, 환경기술 등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 연구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군요. 전공 후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 장 : 화학공학을 전공하면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체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석유회사, 에너지회사, 제약회사, 전자회사, 바이오 회사, 또 국공립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감사합니다.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팀장의 세 번째 대화에서, ②는 다섯 번째 대화에서, ③은 네 번째 대화에서, ⑤는 여섯 번째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④)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화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번> 이번에는 수업시간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막을 여행하다 물이 떨어져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낙타 혹에 가득 차 있는 물을 꺼내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낙타의 혹에는 물이 정말 가득 차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낙타의 혹은 지방으로 가득 찬 에너지 창고라고 합니다. 낙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별 쓸모가 없지요. 이처럼 간혹 사람의 엉뚱한 상상력이 동식물 세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습니다.
또, 제비집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제비집을 깨물면 입안이 온통 흙으로 가득 찰 텐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게 되겠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 요리에 나오는 제비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몇몇 흰집칼새의 둥지입니다. 흰집칼새는 종종 생김새가 제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비처럼 인식되곤 하지요. 흰집칼새는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굳어버리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집칼새가 번식기에 침샘이 팽창하면, 이 점액으로 작고 납작한 대접 같은 둥지를 만들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이지요.
한편, 사람들은 쥐며느리가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곤충은 다리가 여섯 쌍이지만 쥐며느리의 다리는 일곱 쌍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물 속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쥐며느리는 뭘까요? 쥐며느리는 갑각류인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쥐며느리는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인 것이지요.
어떠세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에 대한 상식이 사실은 인간 중심의 편견과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인간 중심의 편견과 착각을 낙타의 혹, 제비집, 쥐며느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지요? ~는 아닙니다.', '~은 뭘까요? ~입니다.'와 같이 스스로 묻고 답하며 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말하기의 특징은 ①이다.

3.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3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정부는 며칠 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급자 중심인 아파트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윤 연구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선생님, 시청자를 위해서 아파트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구원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선분양 방식에 의해 대부분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맨땅에 설계만 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식이지요. 이에 반해 후분양 방식이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을 듯한데 후분양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연구원 : 아파트 선분양 방식은 수요자의 계약금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중도금을 받아가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급자인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해져 결국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반해, 후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준공한 후 분양하게 되므로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와 건설회사 사이에 날림 공사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자금이 안정적이라 주택의 품질도 더 좋아지죠. 또한 실수요자가 분양 시점에 입주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예,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러면 아파트 후분양 방식을 시행할 경우 염려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연구원 : 예, 하지만 후분양 방식은 아파트의 공급을 줄이게 되어 주택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입주 시기까지, 공사와 관련된 물가 상승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5~20% 정도 비싸지므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자와 건물을 짓는 건설업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수요자는 목돈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체는 자체적으로 공사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거죠.
사회자 :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을 듣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후분양 방식은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4. [인물의 태도 평가하기]

<4번> 이번에는 연극 공연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 : 무겁습니다.
남 : 무겁다니?
여 : 이 쪽두리며 머리가……. 지겹습니다. 제 손으로 벗는 법이 아니라고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남 : 나더러 풀란 말이오?
여 : 예.
남 : 손수 풀어보지 그래요.
여 : 법이 아닙니다.
남 : 뜻이 아니라면?
여 : 법은 따라야 합니다.
남 : 할 뜻이 없으면 법도 어찌할 도리가 없잖소?
여 : 뜻은 죽일 수 있어도 법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남 : 뜻은 죽여도 법은 못 죽인다고?
여 : 아녀자는 뜻보다 법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남 : 법을 따르다 죽게 된다면?
여 : 뜻을 따르다 죽게 되는 것도 매일반입니다.
남 : 그렇다면 나와 혼인하게 된 것도 뜻이 아니라 법이었다는 뜻인가? 나는 뜻이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소.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가지는 일도, 버리는 일도. 모두가 내 뜻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오. 그리 알고 나와 함께 살 자신이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여자의 어조가 약간 높아진다)
여 : 그럼 왜 혼인을 하셨습니까?
남 : 부모님의 뜻이었소.
여 : 부모님의 뜻은 법이 아니겠소?
남 : 법이 아니라 우격다짐이지. 나는 법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그 우격다짐에 잠시 굴복했을 뿐이오. 내 뜻은 아니오. 미안한 일이지만…….

[출제의도] 남녀간의 대화를 통해 여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대화에서는 뜻과 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는 개인적인 감정, 자유로

운 행동 등 개인의 뜻을 중시하지만, 여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보다는 법 즉, 사회 윤리적인 규범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5~6번> 다음은 어떤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왜 돈은 오래 빌려쓸수록 이자가 높은 것일까요?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여행객에게는 방값이 할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렌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 금리는 만기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눕니다. 빌려쓰는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를 단기금리, 1년 이상일 경우를 장기금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장고단저(長高短低)'라는 말도 있지요.
>
>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동성(流動性)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는 학자들이 많은데, 유동성이란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다 높은 금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늦게 돌려주면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비디오를 빌려줄 수 없었던 비디오 대여점이 연체료를 물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는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높아졌다면 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 입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빌려쓰겠다는 사람도 많아져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
>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으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는 매우 좁혀지게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쓰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장기금리는 내려가게 되지요. 심한 경우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만기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만기 하루 짜리 콜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 하지만 이렇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 무엇보다 사람들이 돈을 짧게 굴리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리저리 돈을 움직이게 되면 큰 혼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흘러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짧아지면 제대로 된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눈치보는 사람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시장에는 해가 되는 일입니다.

5. [강연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듣고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강사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낮을 경우 사람들이 돈을 짧게 굴리는 성향이 나타나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래프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시점을 파악하면 된다. 정답은 ㉢이다.

6. [강연을 듣고 결론을 추리하기]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강사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강연에서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의미를 설명한 후,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장기 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는 경기를 예측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 쓰 기 /

7. [글감 연상하기]
[출제의도] 그림을 제시하고 연상하게 한 후 그림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글감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그림을 보면 인터넷상의 언어 사용 문제점 중에서도 우리말, 우리글의 훼손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8. [소주제문 작성하기]
[출제의도] 글을 완결시키는 주제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글은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복지 정책의 노력의 부족과 전통적인 가치관 붕괴로 말미암은 노인 계층의 소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문은 두 가지 점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9.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 고쳐쓰기]
[출제의도] 추가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료1]은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경험을 비교한 것이며, [자료2]는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이 교통 사고를 낸 기사이다. 문제의 발문에서 두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것을 묻고 있으므로, 하나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개요표에 추가한 것이나, 추가할 내용이 개요표의 단계에 알맞지 않으면 적절한 개요 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④에서 엑스터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지만, 부작용을 환기시키는 내용을Ⅱ-2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10. [규범에 맞는 어휘 활용하기]
[출제의도] 뜻의 차이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규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다.

[해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의 뜻이며, '늘리다'는 '물체의 수량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많게 하다)'의 뜻이다.

11. [창의적 표현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늘 묻는 문제이다.

[해설] '푸른 보리밭, 종다리'라는 소재는 향토적 분위기를 살리고 있으며, '흰 구름, 푸른 보리밭'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푸른 보리밭에서 종달새가 우짖는 곳과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에서는 계절적 감각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12. [고쳐쓰기]
[출제의도] 처음 쓴 글과 완성된 글을 비교하여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첫 번째 문장에 '희곡은'을 넣어준 것은 '주어'를 밝혀 적은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라고 고친 것은 동일한 의미 구절이 중복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어 쓴 것은 앞 문장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그리고 희곡이 ~ 점이다.' '이는 ~ 다른 점이다.'의 두 문장으로 나눈 것은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긴 것을 간결하게 다듬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 현대시 /

출전 : 백석, '고향'/ 한하운, '보리피리'/ 이한직, '낙타'

13. [시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상 전개의 중심 요소로 매개체가 활용되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의원'을 매개체로 하여 화자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따스함'을 느낀다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나)는 '보리피리'을 매개체로 하여 어린 시절의 고향과 인간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다)는 '낙타'를 매개로 하여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14. [시적 분위기 이해하기]
[출제의도] 시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 시의 분위기에 알맞은 지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는 화자가 의원을 만나 고향과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는 부분이므로 '쓸쓸한 표정'은 어울리지 않는다(⑤).

15.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해설]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것이다 볼 수 없다(⑤).

16. [시적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반복적으로 사용한 시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해설] 특정 음운을 반복한 '피- 르 닐리리'는 고향과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정조를 심화시키고, 연과 연을 나누고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④).

17.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감상한 후,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화자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이미 늙으셨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 과 학 /

출전 : 정재승, 『과학콘서트』

18. [세부적인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이 글은 최근 물리학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알갱이 역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는 퍼 박 박사가 연구하여 발견한 고비성 현상, 재거 교수가 모래 알갱이의 흐름을 발견한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재거 교수의 연구는 모래시계의 원리를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혼베이커 교수의 모래와 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덧붙여, 알갱이 역학이 물리학에서 새롭게 연구되는 분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알갱이 역학 자체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19.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글쓴이는 퍼 박 박사, 재거 교수, 혼베이커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최근 물리학에서 관심을 많은 갖는 알갱이 역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⑤).

[오답 피하기]
글쓴이는 객관적인 자세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견해, 비판, 새로운 이론의 제시, 결론의 도출, 자기 해석, 절충적인 결과 도출 등은 제시문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20. [세부 정보의 추리]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해설] 제시문에서 멈춤각은 모래가 갖는 특징에 따라 각도가 변한다. 그러나 모래더미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모래에 수분을 첨가하면 멈춤각의 크기는 급격하게 커진다. 멈춤각은 쏟아 붓는 모래의 양과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이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되므로 그 양은 비슷하다.

2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

용할 수 있다.

[해설] 모래시계의 원리는 고체인 모래 알갱이가 위치에 따라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래 알갱이가 일정한 속도와 양으로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기[그릇] 안에 알갱이가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그 안의 알갱이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④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는 액체 상태 혼합물, 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래 알갱이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③은 커다란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 ⑤ 작은 알갱이는 아래로 이동해 층을 이룬다는 것이므로 모래 시계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22.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모래에 수분을 첨가하면 응집력이 커지므로 모래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높은 모래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③).

/ 현대 소설 /

출전 : 김동리, 역마(驛馬)

23. [작가의 창작 의도 추리하기]
[출제의도] 길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작품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문제이다. 제목이 역마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삶은 떠돎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삼거리 길은 인물들이 헤어짐의 장소이자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에 선 장소가 된다. 성기가 '화갯골'로 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타고난 역마살(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24. [대화 내용의 기능 알기]
[출제의도] 작품을 이끌어 가는 대화의 내용이 소설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소설에서 계연을 사랑하던 성기는 계연이가 어머니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계연이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되고 결국 정해진 운명에 따라 길을 떠난다. 이와 같은 서사적 흐름을 뒷받침해 주는 대화 내용은 ㉣로써 이는 인륜 때문에 성기는 계연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되고, 그러한 성기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5. [인물의 심리 추리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들의 대화와 상황을 고려하여 인물의 대사를 추리하는 문제다.

[해설] ㉠은 옥화가 할 말을 잃은 부분이다. 주인공의 타고난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옥화가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결국 너도 떠나려 하는구나"(①)가 적절하다.

26. [독자의 반응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난 후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독자의 이해 및 반응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등장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반응을 묻는 것으로 앞 뒤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운 후의 행동과 대화로 볼 때, 성기가 떠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27. [작품의 줄거리 파악하기]
[출제의도] 다른 장르로 전환하여 줄거리를 제시하고 작품의 흐름을 묻는 문제다.

[해설] 제시된 지문의 내용과 상황을 토대로 하여 줄거리를 파악하였을 때, 앓고 난 후 운명에 순응하여 떠나려 하는 성기에 대해 옥화는 내심 그도 떠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 사 회 /

출전 : 이인구,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
정재승, 『과학콘서트』

28. [정보의 사실적 이해]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현실 경제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은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예측이 가능하고, 하나의 상품이 독점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은 제시문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29. [추가된 정보의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복잡성 과학으로 현실 경제를 풀어가는 대표적 인물은 아서 교수이다. 그는 현실 경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글쓴이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로 VHS 비디오 테이프 재생 방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었는지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경제에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비판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변화는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를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VHS 방식이 시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확체증의 법칙을 설명할 때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0.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파악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바탕을 두고 좀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물질의 힘에서 정신의 힘으로, 자원 위주에서 지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이므로 타당하다. ②는 VHS방식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과정에 바탕으로 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기업들의 독점 과정을 탐구해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③은 수확체감의 법칙과 수확체증의 법칙의 바탕에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 욕구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볼 수 있다. ⑤는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추상적으로 언급된 식량산업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실제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제이다.

[오답 피하기] ④는 제시문에서 정보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새로운 경제학 이론까지 탐구하는 것은 제시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1. [자료 활용하기]
[출제의도]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수확체감의 법칙이고, ㉡은 수확체증의 법칙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늘어나는 수익성을 투자량에 못 미친다는 부분에서 추리가 가능하다. 즉 투자와 수익이 비례하다가 일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확체증의 법칙에 대한 단서는 제시문에서 VHS 사례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즉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시장의 독점이라는 것은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이 계속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두 법칙과 관련이 깊은 그래프는, ㉠은 ⓒ이고, ㉡은 ⓐ이다.

[오답 피하기] ⓔ는 투자와 이익이 정비례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32.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선점 효과로 시장이 독점되는 과정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된다. ① 서비스를 추가, ②는 규모의 이점, ③은 기반 시설 및 제도의 이점, ④는 기술 개발의 이점으로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는 예라 할 수 있다.

/ 수 필 /

출전 : (가) 유진오, '해바라기'
(나) 한흑구, '보리'

33. [글쓴이의 의도 파악]
[출제의도]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글쓴이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나)에서는 온갖 시련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보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드러난 것은 자연의 강한 생명력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자연의 모습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다(③).

3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좋은 환경에서 자란 해바라기의 발육 상태는 얄미울 정도로 잘 자라는 데 비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해바라기는 발육 상태가 부진하다는 사실은 결국 식물의 생태는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인간은 환경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존재이므로 해바라기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②).

35. [글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보리를 의인화하여 인간의 삶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고(①),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함에 따라 환경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②). 또한 시련의 계절이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보리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있으며(④), 글쓴이는 보리를 '너'라고 지칭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⑤). 그러나 이 글은 글쓴이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③).

36. [글쓴이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와 유사한 작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글쓴이는 '보리'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엿보이는 것은 ③으로, 이 작품에서도 난초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①에서는 동백을 관조의 대상으로, ②에서는 새를 존재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순수함을 지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④,⑤에서는 '오랑캐꽃'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고 있다.

37.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상황에 적합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으로 보아, 제풀에 쓰러질 듯하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는 '흐늘흐늘(①)이다. '한들한들'은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낸다.

3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출제의도] 세부 정보가 글의 내용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화조도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사고는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고 넷째 문단에 진술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39.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지니다'는 아래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1.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
2. (…을)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
   ㉢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

①은 위의 1과 같은 뜻이고, 나머지는 모두 2-㉠의 뜻과 같다.

4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특정 부분에 반영된 진술 의도를 다른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인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스스로의 질성에 따라 생을 구가한다'는 언급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경지와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③이 답이다. ①은 자연현상에 빗대어, 벼슬살이에서 험한 일을 겪는 것(환해풍파:宦海風波)에 대한 경계를, ②는'구름'과 '바람'의 상반성을 통해 불변하고 일관성을 지닌 '물'에 대한 칭송을, ⑤는 대상에 대한 애착과 대상의 풍경이 빼어남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41. [생략된 어휘 추론하기]
[출제의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생략된 어휘를 문맥 파악을 통해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2, 3 문단에 화조화의 소재인 '꽃'과 '새'를 선택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글 전반에서, '꽃'과 '새'는 각각 음(정)과 양(동)의 세계를 대변하는데, 이 두 세계의 '대비'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화조도의 세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답은 ①번이다.

42.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③의 '화조도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심화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고전 시가 /

출전 : 정약용, '보리타작'/ 작자 미상, '사설시조'/ 박인로, '누항사'

43. [시가의 종합적 이해]
[출제의도] 세 작품의 고전 시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보리타작'을 소재로 하였고, (나)는 농부의 하루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다)는 서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대화체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④이다.

44.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기]
[출제의도] 동일한 작가의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세속의 부귀공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모습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표현하였지만, <보기>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이다.

45.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농민의 하루 생활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

46. [시상 전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출제의도] 대화로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시상의 전개로 보아 ㉠, ㉡, ㉢, ㉣은 소 주인과 화자가 현재 대화을 나누고 있는데 반해, ㉤은 소 주인과 건너 집사람과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 인 문 /

출전 : 오너, 헌트 공저, 『철학에의 초대』

4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출제의도]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주로 비유적 표현으로 논의의 대상인 '철학'의 특성(모험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②, ③은 반대된 사례나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④는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다(⑤).

4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특정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다른 어휘로 교체하여 그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의 '꿰뚫어 보다'의 사전적 의미는 '통찰(洞察)'에 가깝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을 뜻하는 '규명(糾明)'이 더 적절하다. ②의 관찰(觀察)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을, 주시(注視)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봄'을, 예측(豫測)은 '미리 헤아려 짐작함'을, 추출(抽出)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을 뜻하는 말이다.

49. [글쓴이의 의도 추리하기]
[출제의도] 글쓴이가 어떤 의도에서 특정의 인용문을 끌어오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철학의 특성인 '모험성'과 '대가'를 알리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였다. 즉, '동굴'은 기존의 세계를, '동굴 밖'은 기존의 세계를 뛰어넘은 곳(진리의 세계)을, 동굴 안과 동굴 밖까지를 지나는 과정은 '모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굴의 밖에 도달하여 과거 세계의 허구성을 아는 것을 '지식 획득'으로, 불신과 박해를 혹독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것은 ⑤번뿐이다.

50. [어휘 비유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지시하는 어휘의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환한 세상'은 '기만과 구속'의 세계와 상반되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데, ⓔ의 '섬'은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내므로 ㉢과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니고 있다. ⓐ의 '바다'는 "철학(의 세계)'을, ⓑ의 '뗏목'은 철학적 모험의 장에서 활용되는 수단(기존의 지식)을, ⓒ의 '조난자'는 철학에 입문한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혼돈을, ⓓ의 조류'는 철학적인 혼돈과 방황 중에 얻게 되는 작은 지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1. [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핵심 사항은 철학의 특성이다. 즉 철학이 가지는 모험성과 가혹한 대가(절망)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①, ③, ④, ⑤는 그러한 핵심적 특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②는 철학의 특성인 '모험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

/ 언 어 /

출전 : 이문규, 우리말글살이의 바른 길

52. [글쓸이의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에서는 외래어 수용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우리말 살려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③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은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않다.

53. [국어 문법의 올바른 이해]
[출제의도] 잘못된 외래어법으로 표현된 문장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에서, '~ 토론을 하다'가 우리말의 바른 어법이다. '토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은 외래어 번역어투의 예라 할 수 있다.

54. [우리말 가다듬기의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외래어를 우리말로 되살려 쓴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바겐 세일'을 '할인 행사'라고 쓰고는 있지만 순수 우리말을 되살려 쓴 것이 아니라 한자어로 바꾼 예이므로 ㉡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다.

55. [적절한 논거 찾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입장에서 다른 견해에 반대하는 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글쓴이는 순수한 우리말을 되살려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 병용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 고대 소설 /

출전 : 작자 미상 '장끼전'

56.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산문적인 내용을 일정한 단위의 어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고(①), 인간의 삶을 '장끼'와 '까투리'라는 동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③). 또한 '장끼'와 '까투리'는 서로 자기의 의견에 합리화를 위하여 중국의 고사를 억지로 끌어다 쓰고 있다(⑤). 또한 '장끼'의 첫 번째 말에서는 의도적으로 '태(太)'자를 반복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다(②).

57. [상황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에 관해 묻는 문제다.

[해설] 작품 속의 상황을 연상하며 읽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장끼'가 덫에 걸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당당하다. 죽게 된 '장끼'가 '까투리'에게 기대어 슬픔에 쌓인 '까투리'를 위로하는 장면은 연상할 수 없다. 정답은 ⑤이다.

58. [등장 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과 심리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을 묻는 문제다.

[해설] (가)부분은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콩을 먹으려다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장끼'를 눈앞에 둔 상황과 그 애통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①번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공무도하가'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가)의 상황과 유사하다(①). ②는 정지상의 '송인'으로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③은 처용의 '처용가'로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는 노래이며, ④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쓴 '정읍사'로 행상 나간 남

편의 무사한 귀가를 기원하며, ⑤는 사설시조로 임을 그리는 외로운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59. [상황에 맞는 속담 찾기]
[출제의도] 작품 속의 인물이 처한 상황을 속담으로 표현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상황은 덫에 걸린 '장끼'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독 안에 든 쥐의 상황과 같다. 정답은 ①이다. ②는 '좋은 일을 바라고 갔다가 불리한 일을 당할 때'를 비유하는 말이니, '장끼'의 처지가 죽음 앞에 처한 급박한 상황이라 것과는 거리가 있다. ③은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 ④는 '남을 불행한 구렁으로 끌어넣는다는 뜻.' ⑤는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면 강적에게 용기를 내어 달려든다는 말'

60. [작품에 드러난 작가 의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작가 의식을 두 작품을 비교하여 찾아내는 것을 묻는 문제다.

[해설] 두 작품에 주인공 '장끼'와 '다람쥐'는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까투리'와 '계집 다람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봉건 제도 하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들의 권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했다. 정답은 ③번이다.